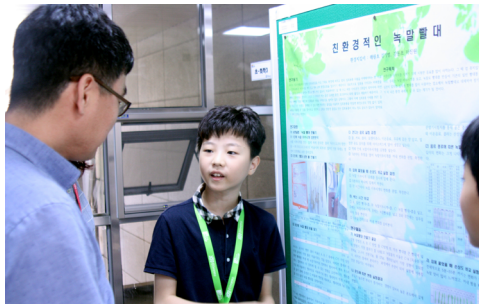


포스터발표 & 과학체험활동 & 환송의밤  
**KSASF 3일차 소식!**

**Day 4**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포스터 발표를 하고 있는 참가자, 심사위원에게 포스터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참가자, 계란 던지기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참가자, 만수루 콘셉트의 종이 옷을 입고 있는 임형준 도우미, 도우미에게 입힐 옷을 만들기 위해 전지를 자르는 참가자, 골드버그 장치를 시연하는 참가자

주제탐구활동과 그 결과의 발표가 있었던 2일차에 이어 어제(3일차)에는 오전 9시부터 본관 1,2층에 설치된 연구프로젝트 포스터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연구프로젝트 분야 참가자들은 축전 첫날 설치한 연구프로젝트 포스터를 이용하여 심사위원님들께 발표하여 먼저 심사를 받은 후에 자유롭게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이나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한 사람당 3개씩 지급된 스티커를 이용하여 동료평가도 이루어졌다. 나이와 주제, 분야를 막론하고 이루어진 지식과 연구결과, 산출물 등을 공유하는 의사소통으로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되었다.

식사 이후 오후 1시부터는 프랙탈 만들기, 골드버그 장치 제작과 계란 낙하 구조물 만들기의 과학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참가자들은 조별로 교실로 이동하여 도우미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수학적,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주어진 문제의 해결책을 토의해보고 설계해 보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렇게 도출된 작품 중 우수작은 주제탐구활동 우수작과 함께 오늘 창조관 1층 창조카페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오후 6시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녁식사 이후부터는 어느새 다 지나가버린 KSASF 마지막 밤을 장식할 환송의밤 일정이 진행되었다. 도우미와 고음대결, 제기차기 등의 미니게임으로 물품을 얻어 도우미를 분장시키는 KSASF패션쇼를 비롯하여 도우미들의 영상편지나 롤링페이퍼 등의 다채로운 활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KSASF의 대장정이 막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참가자들에게는 이 3박 4일간의 일정이 좋은 추억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정표\***

09:00~10:00  
우수작 전시 (창조관 1층)

10:30~11:30  
폐막식 (중강당)

11:30~  
퇴교

※ 일정은 적힌 시간과 다르게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ditor's Note : Good-Bye!**

3박 4일의 KSASF 2016이 어느새 끝나버렸네요! 아직 참가자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는데 벌써 보내야 한다니 섭섭할 따름입니다.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이 뉴스레터는 읽기 어땠나요? 원래 계획만큼 다양하고 자세하게 참가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여튼, 나흘간 여러분을 위해 뉴스레터를 제작하면서 재미도 얻고 보람도 느낀 것 같아요. 언젠가 (어쩌면 선후배 사이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 KSASF 2016 Timeline

day  
1



개막식



초청특강



연구프로젝트 구두발표  
& 과학에세이 쓰기



환영의 밤

day  
2



대향전



학교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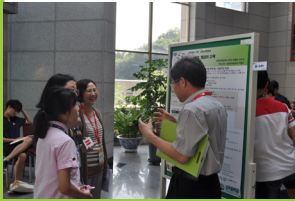


주제탐구활동



주제탐구활동

day  
3



포스터발표



과학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환송의 밤

## 인터뷰!

Q. 어떤 주제로 연구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A. 저희는 '버려지는 생활하수를 난방에 재활용하는 방법 탐구' 라는 주제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위치에너지와 폐열을 이용해 난방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Q. 연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먼저 날개의 두께가 많이 얇아서 날개의 두께를 조절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차를 만들기 위해 시중에 있는 다양한 수차들을 많이 구매하여 분석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Q. 따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나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A. KSASF 2014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행사가 재미있고 유익했던 것 같아서 올해 다시 오게 되었어요.

Q. KSASF 2014에 비해 올해는 어떤가요?

A. 올해는 재작년에 비해 레크리에이션(환영의 밤, 환송의 밤 등) 활동이 늘어나고, 일정도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늘어나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기념티셔츠 착용이 자유로워지는 등 더 학생을 배려하는 행사가 된 것 같아요.



이채린, 성유진, 이현서

Q. 과학체험활동은 어땠나요?

A1. 프랙탈을 책으로만 읽었는데, 입체적으로 만드니 훨씬 재밌고 실감났어요.  
A2.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많이 가까워 질 수 있었어요.

Q. 과학체험활동은 주제탐구활동과 어떤 면이 다른지를 말해주세요.

A1. 주제탐구활동 같은 경우는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지만, 과학체험활동은 조금 더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었어요.  
A2.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탐구하는 주제탐구활동과 달리, 과학체험활동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A3. 주제탐구활동은 태양광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드는 활동, 즉 주제가 제한적인데 비해 과학체험활동은 조금 더 다양한 주제로 탐구할 수 있었어요.

Q. 올해 KSASF는 기존에 야외에서 진행한 현장체험활동을 교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과학체험활동으로 대체되어 운영되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만약 밖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했으면 매우 더웠을 건데, 교내로 대체한 것을 보니 학교의 배려가 느껴져요.



우지훈, 정영준, 민준황